

# 숨가쁘게 달려온 200차 업무회의

(2004. 6. 23. ~ 2008. 3. 13.)

2004년 6월 23일 제 1차 회의를 시작하여 2006년 4월 5일 제 100차 회의를 지나 2008년 3월 13일 제 200차 회의에 도착하였다.

남들이 보면 회의 200번 한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말 할 수 있겠지만 이 회의에는 우리식구들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자성, 원장님의 칭찬과 질책, 격려와 낙담이 담겨 있는 우리 환경안전원의 산 역사가 녹아들어 있다.

뜻깊은 200회를 맞아 원장님과 4분의 부장님을 비롯하여 9명 전 직원이 모여 서로에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조출한 파티를 열었다.

그 동안 회의를 통해

- 환경안전교육 수료증 제작
- 실험폐액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부과
- 환경안전선언문 발표
- 우수기관 포상 추천선 작성
- 학내 공기 오염도 조사
- 일본 대학 방문 기획
- 안전관리업무 전산화
- 실험안전 실습관 기획
- 환경안전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
- 환경과 안전 지킴이 및 브로셔 발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기에 마음을 다잡아 본다.

다음은 우리 안전원 식구들이 200회 업무회의를 맞이하는 감회를 짧게 적어 보았다.



04. 6. 23. 1차 회의



06. 4. 5. 100차 회의



08. 3. 13. 200차 회의

# 더 큰 성장으로 가는길

엄종수

아니 벌써! 200차 직원회의.....

환경안전원의 역사적인 1차 업무회의는 2004년 6월 23일(수) 17:06~18:20 환경안전원 행정실에서 원장, 이동렬, 이영재, 손병권, 최경순, 이현숙, 양상철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님의 주도하에 각자의 업무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솔직히 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다.

회의내용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다음회의 때마다 자신의 업무진행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실시했는데 우리 안전원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발돋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매주 불규칙하게 열리는 직원회의는 우리를 긴장의 연속으로 몰아넣었고 직원회의가 매회 반복 될수록 긴장감과 업무량은 늘어만 가고 스트레스 역시 많이 받게 되었다.

이렇게 1년 10개월이 지난 2006년 4월 5일 12시 안전원회의실에서 100회 달성 자축파티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주어진 업무량 때문에 근무시간이 모자라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까지 휴일도 학교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점차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갔다.

마침내 2008년 3월에 200차 업무회의가 도래하게 되었다. 비록 회의가 계속 진행해오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마음한편에 뿌듯함을 안겨주었고 노력한 결실의 열매가 하나둘씩 맺기 시작하였다.

기획실 부속시설평가와 총무과 우수기관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수상하게 되었고 부상으로 받은 포상금으

로 우리학교 미대졸업미전 때 작품을 구입하여 우리 안전원의 로비와 원장실, 행정실 안에 전시하였다. 그 작품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무언가의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매년 발행하는 환경과 안전지킴이, 실험실안전 백서, 학내 실험실 공기오염도 조사 보고서 외에도, 정기 환경교육 때 우리가 학내 실험실 실태를 강의하는 등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여 업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하물며 술자리와 식사 때 등 어느 모임에서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스스럼없이 주제가 업무이야기로 이어져 열띤 토론장이 되곤 하였다. 이처럼 업무회의는 우리 직원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었으며, 그 결과 일에 자신감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처리능력도 매우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아!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온 200차 업무회의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 보람된 순간들

이영재

환경안전원 업무회의 200차 달성이다. 100차를 맞아 원장님, 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 케이크를 비해 놓고 박수치며 자축하였던 일이 엇그제 같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환경안전원 가족들과 동고동락 지내면서 우리 스스로는 많은 변화와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고통 뒤에 숨어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음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차 회의를 거치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처음에 임무 부여받은 환경안전교육 수료증 디자인 변경 과정과 실험실 안전점검을 수행하면서 겪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짧게 생각해 봤다.

제1차 업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여받은 업무는 환경안전교육 수료자에게 발급되는 수료증의 도안 작업이었다. 이전에 나왔던 수료증은 7~8년 정도 사용 했었는데 인쇄소에서 제작된 밑그림에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환경안전원의 위상에 비하면 품격이 따라주질 못했다. 고심이 시작되었다. 약 1주간의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 졸업장의 모양에 힌트를 얻어 수료증 바탕에 열린 서울대 로고를 그려놓고 금색 테두리 선을 그려놓으니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여기에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수료증을 출력해 보니 시간도 단축되고 모양새 또한 그럴 듯 하였다. 더욱이 미대 김수정 교수님께서 수료증 부착판의 색상을 디자인해 주시어 수료증의 가치를 더해 주었다. 지금 그 수료증이 환경안전원을 대표하여 서울대 실험실 곳곳에 붙어 있으니 그 보람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경안전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실험실안전점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점검대상으로 하는 실험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험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남자직원들은 3개월 동안 단단히 고생준비를 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계단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지적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낭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함은 기본이다. 각자 방문해야 할 실험실 수를 나누다 보면 한 사람당 약 300여 개 실험실을 가도록 할당 된다. 점검가방 둘러메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점검업무의 긴 항해가 시작된다. 대체로 방문 시작하는 처음 일주일이 제일 피곤하다. 그 날 하루의 점검을 끝마치고 사무실에 모이면 대개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된다. 서로 얼굴을 봐도 말이 없다. 다리 힘은 쭉 풀리고 입에서는 단내가 폴폴 나고... 화이팅 하고 힘차게 외치던 활기찬 근성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없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돌아다니는 것이 적응된다. 이렇게 관악, 수원, 연건캠퍼스의 1,400여 개의 실험실을 3~4개월여 동안 휘젓고 다닌다. 긴 여정을 마친 후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나를 기다린다. 데이터 정리 하고, 안전백서 보고서 얼른 쓰라고. 여지껏 몸이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점검항목별로 본문 내용 작성하고, 실험실 지적사항 기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부록으로 작성하고, 사진파일 작업 들어가고, 보고서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실험실 안전백서는 진통을 겪으며 태어난다. 그 동안 모두들 남모르게 많은 속앓이를 했지만 두툼하게 살찐 안전백서의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말끔히 씻겨져 버린다. 저 녀석 안전지킴이로 제대로 한 몫해야 될 터인데...,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번지면서 보람을 느껴본다.

# 환경안전원 힘의 원천 '회의'

손병권

환경안전원에서는 2004년 6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 4월 5일 12시에 100차 회의를 개최하고는 이를 기념하는 자축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無'에서 '有'를 창조 100차 회의까지」란 제목으로 2006년 지금까지에 기고까지 하였을 정도로 우리 안전원에서의 회의는 남다르다. 이후로 또 2년 만에 100차의 회의를 더하여 3월 13일 20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의를 통해서다. 100차 이후 지금까지의 업무 또한 회의를 거쳐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우리 회의는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모여 이루어지는 직원회의와 부장님 네 분도 참가하시는 부장회의가 있다. 일반적인 업무는 직원회의에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이 있을 시 직원회의를 거쳐 부장회의에서 현안을 해결한다.

회의는 해야 할 일과 한 일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토론한다. 해야 할 일에 대하여는 안전별로 개인의 희망에 따라, 혹은 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담당자가 지정되고 담당자는 다음 회의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맡은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회의 자료가 따라 붙는다.

매주 월요일 정기 회의가 있지만 불시에 개최되거나, 현안에 따라 몇 번의 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특히 일본 출장 중에 원장님께서 오전 6시에 진행 상황 체크를 위하여 7시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화하셔서 갑자기 모두들 바쁘게 준비한 적도 있었다.

사실 100차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회의에 웬만큼 적응한다고 생각하였는데, 200차가 지난 지금도 회의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이다. 1주일에 평균 1번 개최되는 회의를 위하여 우리는 3~4번의 자체 회의를 거친다. 혼자 있을 땐 업무생각으로, 둘이 모이면 업무 대화, 셋이면 토론, 넷 이상이면 회의가 열린다고 할 정도로 모두들 업무를 생각하고 토론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원장님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5년에 이어 2007년에도 부속시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일본 대학 및 연구소 방문,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 백서 발간, 실험 폐기물 유료화 추진, 실험실 점검 및 환경안전교육 전산화 등과 같은 굵직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회의를 위한 나날이 힘들고 벅차지만 이를 통하여 얻는 결실에 대한 댓가를 생각하면 이런 치열한 사고와 생활은 서서히 극복의 대상이 된다.

환경안전원에서는 또다른 유를 창조하기 위하여, 환경안전원의 힘의 원천인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 안전원의 고뇌와 열정이 녹아있는 200차 회의를 자축하며...

양기각

환경안전원 업무회의가 2006년 4월 100회를 이어 2008년 3월 드디어 200회를 맞이한다. 회의가 안전원의 변화에 공헌한 바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조출한 모임을 계획 중이다. 지난 회의를 돌이켜 보니 안전원 식구들의 고민과 도전 그리고 열정이 녹아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처음 회의에 참석할 때 결심했던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짙막한 글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멤버들의 교체로 업무 조정이 당연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시간에 가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힘겨워질 때 오히려 회의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일을 해결할 때마다 전보다 나은 안전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에게 웃음과 고민과 숙제를 안겨 준 회의를 나누어 보면 직원회의와 부장회의가 있다.

직원회의는 대부분 원장님과 직원 9명으로 진행되며 안전은 환경안전교육, 실험실안전관리, 실험폐수 관리, 실험실안전백서 발간, 환경과 안전지킴이 발간 등에 대한 것이며 회의 진행은 담당업무에 대한 진행 사항 보고 및 원장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부장회의는 안전원 회의의 중추로서 4분의 부장님들이 바쁜 일정에서도 꼭 회의에 참석하시고 안전원의 현안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어 안전원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원장님의 씬 없는 추진력이다. 연구실의 바쁜 일정에도 매일같이 안전원에 들러 업무 진행 사항을 챙기고 심지어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날에도 참석해 우리가 더욱 분발하도록 애를 쓰신다. 단순한 업무를 뛰어 넘어 어떨 때는 와인에 대해서, 어떨 때는 세간에 주목을 끄는 미래에 관한 책을 읽어서 서로의 의견을 내어보도록 하는 등 끊임없

는 담금질로 안전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저 업무만으로도 하루를 다 보낼 지경인데 아이디어 회의, 책자 발간, 기타 교양테마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어깨가 빠근해지고 손목이 아려오고 눈이 폭 꺼지고...

힘들게 정상에 올라서일까? 발밑에 있는 세상을 훌가분하게 바라보는 기분으로 200차 회의를 맞이한다.

돌이켜 보면 단순한 업무회의에서 벗어나 안전원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다. 으레 해왔던 업무를 회의라는 형식을 갖추어 의견을 나누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어느새 안전원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문화를 통해 얻은 것 몇 가지 중 하나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원 멤버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다. 음악회, 오페라, 와인, 각종 연수를 통해 다른 세계를 두루 맛볼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그리운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했던 것, 안전원 회식 후 품평회 했던 것, 일본대학 방문했을 때 아침 시간을 쪼개어 호텔 식당에서 했던 회의, 그리고 워크샵 가는 날 아침 안전원의 업무와 비전을 두고 회의 했던 것 이렇게 안전원 구성원 모두의 땀과 노력이 있어 안전원의 미래는 밝지 않은가?

작은 돌이 모여 어엿한 탑의 모습이 되듯이 1차, 2차... 200차 업무회의를 통하여 쌓은 안전원의 탑이 서울대 직원 모두에게 사랑 받았으면 합니다. 환경안전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 환경안전원 미래 비전(vision)의 밑거름

박종석

2007년 교정에 봄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4월초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인사발령으로 환경안전원에서의 근무는 뜻밖의 일이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봄을 느낄 겨를도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머리가 복잡했다.

환경안전원 출근 첫날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환경안전원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출근하기 며칠 전 환경안전원에서 발행한 환경안전지킴이, 실험실안전백서, 브로셔 등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2006년에 만든 환경안전지킴이를 보던 중 업무회의 100회를 축하하면서 환경안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케이크를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과 글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100번째 회의를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

환경안전원 구성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회의를 많이 하는 부서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출근해서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는데 나는 적지 않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많은 회의 자료를 보고 놀랐고 다음은 원장님의 날카로운 지적과 직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

회의 자료는 한눈에 보아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정도에 만족을 못하시는 원장님의 의욕과 열정에 회의를 단순히 많이 하는 부서로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지 않을 수 없었다.

100번째 회의를 기념하면서 케이크를 놓고 당당히 축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42회부터 회의에 참여해 200회에 이르기까지 짧은 회의의 거치면서 100회를 기념하는 모습을 보고 웃던 마음

이 지금은 스스로를 자축하고 싶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라곤 한다.

우리 환경안전원 직원들은 모든 일을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원장님의 눈치만 보던 회의를 탈피해 우리 스스로가 회의를 주재하고 의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환경안전원만이 가질 수 있는 색이 분명한 회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못해 200회에 대한 의미가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지만 200번의 업무회의를 거치면서 환경안전원의 발전도 200이란 큰 숫자만큼이나 발전했을 것이다.

그동안 첫 번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환경안전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첫해부터 100회까지는 無에서 有를 만들어 냈다면 그 이후 200번째 업무회의까지는 환경안전원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새롭게 환경안전원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때로는 점심시간을 쪼개가면서 회의를 했던 기억도 있고 퇴근시간이 다되어서 회의를 하다보면 약속시간을 어기는 일은 다반사였다.

이제는 약속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대학 직원들은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이해 해주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듯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렸던 회의가 190회 때부터 정례화되어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가졌지만 일요일에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아픔.....

아침에 출근하면 환경안전원 생각뿐이라는 원장님과 이런 열정을 닮아가는 환경안전원 직원들은 201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아갈 우리들의 회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미션 임파서블

강주혁

2007년 8월 1일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

우리 환경안전원은 회의가 참 많다. 주 1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안전에 따라서는 수시로 회의가 소집이 된다. 원장님 주제의 회의가 끝나면 선생님들끼리 과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또 있다. 공식적인 회의는 200회이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대부분이 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나 결과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다. 회의를 위해 많은 공부와 자료를 준비하지만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환경안전원의 발전을 위해서 매일 생각하시는 원장님과 주어진 과제만으로도 벽차하는 나와서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원장님께서서는 오류나 미비점을 수정해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몇 번의 중간 점검을 거치고 나면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뢰감은 더욱 커진다.

안전원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회의를 늦출 수 없다.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자유롭고 많은 발언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한다.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몇 번의 회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 자신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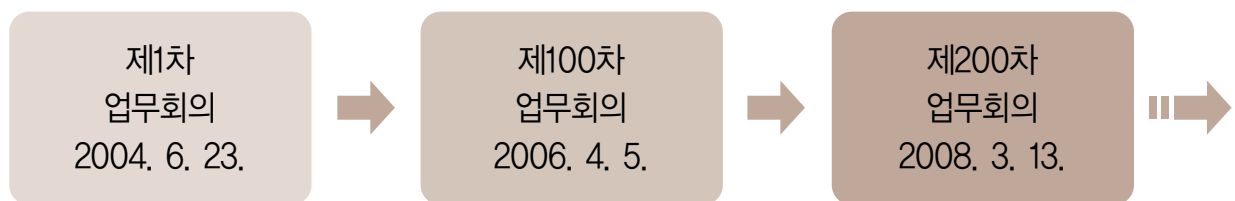
원장님께서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하길 원하신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원장님이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난 회의 준비를 한다.

환경안전원  
**미션 임파서블**  
M:I



# 끊임없는 도전의 중간역에서...

한현정



지난 2년 9개월여 동안 쉬없이 달려왔다. 매주, 어떨 때에는 2~3일에 한번씩 정식 업무 회의가 열렸다. 중간중간 불시에 소집되는 회의까지 세었다면 이미 300차도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동안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한 회의, 워크숍 가서 아침 7시 눈곱만 떴고 했던 회의,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모이기만 하면 회의를 했던 것 같다.

익숙치 않은 회의문화에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 회의에서 환경안전원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옥같은 아이디어들도 많았다. 1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안전원 직원들의 술한 고뇌와 땀방울이 녹아있는 200차 업무회의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축하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업무회의가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업무 협의의 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한다면 더욱 자랑스러울 것이다.

# 환경안전원, 우리의 열정 200차 업무회의를 기념하며...

설동윤

업무회의가 2006년 4월 18일 101차 회의 이후로 2008년 3월 13일 200차를 맞았다. 지난 2006년 4월 5일 100차 업무회의 기념 자축연을 한 뒤로 2년만이다. 나는 2007년 7월 2일 발령받아 165차 회의부터 참여했다.

전 직장에서는 한 부서의 한 팀만의 회의였기 때문에 주로 개발업무에 대한 지시전달 사항을 듣는 회의였다. 환경안전원에 들어와서 회의내용 및 분위기도 달라 이렇게 업무회의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일단은 보고 형식으로 준비된 회의 자료를 위주로 발표하고 원장님의 코멘트와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게 된다. 회의를 해서 좋은 점은 환경안전원이 처리하는 업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주 1회 정기적인 업무회의가 있어서 발령받은 후 환경안전원이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비교적 빠르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느낀 점은 선생님들이 환경안전원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지이다. 다들 점심시간이건 퇴근 후 시간이건 모이면 업무 얘기로 꽃을 피우신다. 장점이면엔 단점이 있는 법, 회의가 보고를 위한 회의로의 빈도수가 잦다는 점이 단점이다.

나에게 지난 8개월은 어떤 일이 있었나 되돌아본다. 폐수처리비용 청구, 환경안전 정기교육과 사이버교육, 국제워크숍, 그리고 제일 큰 일이었던 환경안전원 업무 전산화가 있었다. 태블릿PC와 와이브로를 구매하여 실험실 안전점검을 무선 온라인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엑셀 및 하드카피 문서의 수작업에 많이 의존했던 환경안전교육 신청을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하여 신청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한번에 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도 포털에 연계하여 전산원에 서버를 두게 되어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할 예정으로 작업 중이다. 이 모두는 여러 선생님의 노고와 열의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지난 회의록을 보면 이런 고민과 발전을 향한 선생님들의 의지가 녹아있다.

앞으로 300차 업무회의까지 2년이 더 걸릴지 그보다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는 한 우리 안전원의 회의문화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